테마칼럼

책과 세상 | 신재생에너지 | 문화상상력 | 도시와 인간

강맑실

5월의 산은 그리움으로 달려온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일컫는 것처럼 5월의 산은 '일어서서 달려온다.' 겨울나무가 달고 있었던 겨울눈은 여름부터 준비한 환희의 방울들이다. 그 방울들만 남긴 채 모든 옷을 벗어 버리고 겨울의 고독과 침잠 속에서 산이 뒤척이며 키웠던 건 무엇이었을까. 환희의 방울들이 터질 대로 터져 쑥쑥 자라며 달려오는 5월의 산을 보면 안다. 지난 겨울, 산이 뒤척이며 키웠던 게 무엇인지.

5월의 산이 일 년 중 가장 많은 연둣빛으로 일렁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5월의 산에는 꽃과 나무의 새순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야생화와 나무들의 꽃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어린 잎들이 뛰고 소리 지르고 하늘 향해 가슴을 열어젖히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 부르며 말이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그래서 나는 5월의 산을 가장 좋아한다.

지금쯤 방태산 능선에는 노루귀 꽃이 진 자리에 얼레지와 회리바람꽃이 밭을 이루고 피어 있을 것이다. 광양 백운산 자락의 히어리 나무 군락지에는 노란 꽃이 종알종알 매달려 만발했을 것이며, 산길에 핀 노랑제비꽃은 얼굴을 살며시 들고 산을 찾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리라.

산마다 개암나무와 신갈나무에는 길게 늘어진 노란 숫꽃 위에 조그맣고 빨간 암꽃이 쫑긋 피어 있을 것이며, 갓 태어난 아기 손바닥 닮은 굴참나무 어린 잎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을 것이다. 숲의 나무들 중 누구보다도 먼저 이파리를 피워낸 귀룽나무는 벌써 흰 꽃을 몽실몽실 피워내고 있지 않을까. 아, 5월은 산에서 살고 싶어라.

평생 나무와 함께하며 산을 오르고 있는 나무의사 우종영 선생이 쓴 '게으른 산행'을 나는 해마다 이맘 때면 한 번씩 꺼내든다. 보물찾기하듯 등산로 주변의 나무 찾기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등산로 수목지도가 곁들어 있어서 그걸 하나씩 확인해가며, 여유롭고 한가로이 산행할 수 있도록 편도 3km 이내의 원점 회귀 산행 코스를 그린 친절한 길잡이이다. 나무와 풀꽃들의 사진도 풍부하게 실어 누구라도 그네들을 알아보고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 한 권을 들고 산을 찾으면 그래서 혼자라도 외롭지 않다.

"진동리 설피밭에서 일박을 하고 아침 일찍 휴양림으로 향했다. 골골마다 물은 넘쳐흐르고 물안개가 산골짜기를 감싸고 돈다. …길을 건너 똑바로 가면 냇가로 가는 오솔길이다. 까치박달, 당단풍, 피나무, 층층, 느릅, 고로쇠 같은 활엽수들이 터널을 이루고 물가에는 물푸레, 전나무, 당단풍이 서 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걸음이 느려진다. 겨우내 죽은 듯 있던 나무들이 마술을 부리듯 새싹을 내놓는다. 마치 왼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오른손으로 갈마쥐면 비둘기로 변하는 마술과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본다. 그리고 그렇게 멋진 마술을 보여주고도 어깨 한번 으쓱해 보이지 않는 나무도 그렇다."

방태산 계곡을 오르며 쓴 구절이다. 이처럼 저자가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고른 광덕산, 화야산, 두위봉, 검단산, 운길산 등 21개의 계곡과 능선을 눈으로 따라 가노라면, 숲 바람에 꽃향기가 실려 오고 나무껍질의 촉감이 느껴지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연둣빛 여린 이파리들에 눈이 부시고 싱그러운 계곡 물소리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겨울, 저 산이 몸을 뒤척이며 키웠던 건 그리움이었다. 유년의 그리움. 일상과 놀이의 구별이 없던, 교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자연을 실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던 유년 말이다. 일 년 중 가장 많은 연둣빛의 비밀을 간직한 5월의 산은 나에게 유년의 그리움으로 '일어서서 달려온다.'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이원재

어린이에 절실한 건 선물 아닌 사랑

어린이들을 미화하는 달이다. 특별히 어린이날인 5일이면 어린이 천국 같은 착각이 든다. 딱 하루 온통 신문과 방송 각종 공연과 동물원 무료개방 등 선물공세가 대단하다.

하루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 냄비 문화라고 할까? 그렇게 쉽게 달구었다가 그렇게 쉽게 식어버리다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아쉽다.

인스턴트 문화. 음식도 사랑도 관심도 모두 일회용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무섭다. 어른들의 놀이를 서슴지 않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저지르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른들을 뺨치는 듯한 무서운 범죄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나 어른에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너무 끔찍하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교육의 부재때문이다.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태아교육, 유아교육, 조기교육 등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결코 틀린말이 아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Attention(주의력). Deficit(결핍). Hyperactivity(과잉행동). Disorder(장애)의 첫 글자를 따서 ADHD라고 하는데 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한다.

지금은 ADHD를 질병으로 여기고 병원에서 의학으로 다루고 있다.

ADHD는 절대 질병이 아니다. 교육문제다.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이런 현상은 교육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반응이지 결코 질병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과잉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쉽게 살려고 하는 욕망, 예를 들면 간편, 단순, 개인주의, 일회용 등의 사고방식이 오늘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다. 아니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한다. 모든 것이 나 외엔 귀찮은 것이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하다가 마치 애완용 같은 착각에서 꼭 하나 그것도 낳아서 자신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영아원 유아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나 이모, 고모에게 맡겨 키우니 어떻게 엄마의 뜨거운 애정이 생기겠는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질병 아닌 질병이 생긴 것이다. 이런 현상이 무슨 약으로 나아진단 말인가? 의술로 고쳐지겠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이것은 오직 엄마, 아빠의 뜨거운 사랑 이외엔 약이 없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는 자식농사라 하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는 너무 큰 모순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무엇이 먼저 인지를 모른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출세가 아니다. 가정이다. 가정이 최고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신 줄 아시는가?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배필이 되게 하셨고 생육번성의 복을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가정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특권까지 주셨다. 이제 5월에 다시 한 번 잃어버렸던 가정을 되찾자. 소홀했던 가정에 신경을 쓰자.

방치되었던 자녀들에게 간단한 선물이나 밥 한 끼로 끝내지 말고 애정이 결핍된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모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보자. 하루속히 우리들의 가정이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기고

장맹수

양심불량 면세유 혜택 이젠 안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1986년 3월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을 감면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7차례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유류세의 75%를 감면한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192만 3000㎘로 감면세액은 1조1352억원이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시설원예·축산업 성장기반 구축, 벼농사 기계화 정착에 기여하고, 사계절 신선채소·과일 공급기반 구축 및 수출농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고부가 농업기반을 구축한 현행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하여 농가, 농협, 정부가 모두 불만이다. 농가는 항상 공급량이 부족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제한이 있으며, 미사용량에 대한 전배가 곤란하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은 수입은 없고 민원만 많아 업무기피 및 부정유통에 대하여 불성실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용 보일러 및 차량 등 농업 이외 사용으로 인한 부정유통 문제로 농업용 유류의 면세 지원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면세유 부족 민원, 부정 사용 문제 등 토착형 비리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한 면세유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가들은 올 6월 30일까지 인근 품관원 출장소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2008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인력정보를 포함해서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미 19만 농가(98.4%)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상태다.

품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및 농가, 면세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사용량·부정유통 등의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특히,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업용 이외 용도사용 및 타인 양도 여부, 농업기계 및 시설의 부정한 신고 여부,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 변동신고 30일 초과 여부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현지조사와 병행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품관원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있어서 계측을 통한 실제 사용량만큼 배정토록 하고, 농가별 실제 사용량 확인시스템 강화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현지 확인을 통한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자기소개서 베끼기 만연… '짝퉁사회' 걱정된다

최근 입사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해외 배낭여행 경험을 쓴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했다.

코스, 시간 등 일정은 물론 식당까지 일치하고 몇 문장은 거의 흡사하기까지 했다.

원인은 두 입사 지원자들이 다녀오지도 않은 배낭여행을 배낭여행 책자를 보고 마치 다녀온 것처럼 꾸며서 써냈기 때문이다. 운 없게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책을 보고 베낀 것이다.

입사지원자들이 제출하는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난무한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당혹스러웠다. 해외 배낭여행에서부터 대학시절의 동아리 활동 및 아르바이트 경험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걸 새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사회경험과 활동을 중요시하는 입사 풍토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학력위조 사태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체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허위로 작성한 이력서로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부터 경력 위조에 익숙해진다면 사회의 중견 지도층으로 발돋움한 뒤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짝퉁 사회가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촌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실

한·EU FTA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해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된다.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따라서 이번 FTA가 유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개방 파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한·EU FTA에 대한 국내산업의 명암은 업종별로 크게 엇갈린다. 자동차, 전자, 섬유 등은 수출 확대를 반기지만 농축산업과 중소 의류업, 의료기기 분야 등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농축산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EU FTA로 농업부분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 돼지고기·낙농품 등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1649억 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유럽산 쇠고기의 국내 공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칫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기업형 슈퍼(SSM)규제법에 대한 국내 중소상인의 피해도 우려된다. FTA로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 규제 관련 법안이 무용지물이 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는 한·EU FTA 비준안 통과시 중소 상공인 피해대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농축산업과 중소상은 거대한 개방 파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한·EU FTA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무역환경이다.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못하면 억울하게 관세가 추징되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EU와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한·EU FTA에 따른 경제실리는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불량 볍씨 보급한 정부, 날벼락 맞은 농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보급한 '호품벼' 품종의 볍씨가 제대로 발아(發芽)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 6000여 농가들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장 모내기가 코 앞이지만 모판에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다 당장 대체할 종자도 없어 농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심경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량 볍씨인 이 품종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사용중지 명령만 내렸을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농가에 보급한 '호품벼' 종자는 712t에 이르고 있으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확보하고 있는 대체종자는 1~2t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가가 대체종자를 구하지 못해 1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다. 피해액도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ha에 65kg의 종자 파종을 감안하면 전남지역 피해 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6%인 1만 1000여ha나 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민들의 불만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폭발 직전이다. 유류대와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속병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로 부터 믿고 구입한 볍씨마저 불량이어서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다시 볍씨를 구입해 모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체종자가 없어 이 마저 불가능하다. 설사 대체종자를 구입하더라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인건비며 상토비, 부직포 구입비용 등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장 타지역에서 대체종자나 모를 수급토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상책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국립종자원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농사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무색할 지경이다.

無等鼓

더비

스포츠 경기에 흔히 등장하는 용어에 '더비'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1780년 5월 7일 영국의 귀족인 제12대 더비경이 4살짜리 경마대회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됐다.

경마대회는 영국이 원조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는 미국 '켄터키 더비'다. 첫 대회가 열린 1875년 이후 켄터키 주는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이면 관광객들로 들썩인다. 더비 본 행사는 20마리의 경주마가 2000m의 경주로를 2분만에 달리면 끝나지만 경제효과는 2300억 원을 육박한다.

올림픽 주관사인 NBC가 전 세계에 중계하고 피자헛과 KFC 등 유수의 기업들이 후원을 자청한다. 연예인과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가 VIP 관람실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서 연간 생산되는 경주마 4만 마리 가운데 단 1마리에게만 주어지는 우승마의 동상이 거리에 세워진다.

더비는 '라이벌 전'이란 이름으로 다른 스포츠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대표적인 것이 축구경기다. 당초에는 같은 연고를 가진 스포츠 팀들의 대결이었지만 이젠 계급, 종교, 정치적 라이벌 전으로 일반화됐다.

가장 유명한 더비가 스페인 본토를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상징하는 FC바르셀로나가 벌이는 '엘 클라시코'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더비'는 개신교 쪽인 레인저스와 가톨릭 신자가 많은 셀틱 팬들의 치열한 응원전 때문에 종교전쟁을 방불케 한다.

유니폼 색깔에 더비를 붙이기도 한다. '레즈 더비'는 붉은 색 유니폼을 입는 잉글랜드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리버풀FC간의 대결을 말하고, 광주FC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에는 노란색 옷을 따 '엘로우 더비'라고 부른다.

유명한 더비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발전한다. 켄터키 더비는 켄터키를 세계 최대의 말산업 중심지로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장흥군과 담양군의 말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